

일반논문

전환기의 세브란스병원과 선교활동(1934-1957)¹⁾

신규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 I. 머리말
- II. 한국인 교장 시대의 개막과 선교병원 활동
 - 1. 오궁선의 선교활동과 보육사업
 - 2. 김명선의 평양연합기독병원 활동
 - 3. 문창모의 해주구세병원 및 해주구세요양원 활동
 - 4. 고병간의 함흥 제혜병원 활동
- III. 해방과 한국전쟁기의 세브란스
 - 1. 해방 이후 세브란스의 구호활동
 - 2. 한국전쟁기 세브란스의 구호활동
 - 3. 한국전쟁 이후 학교와 병원의 재건
- IV. 맺음말

I. 머리말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20여년은 일제 강점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한국전쟁 등으로 이루어진 혼란과 격동의 시기였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만주침공,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발발 등 한반도 역시 전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특히 중일전쟁 이후로는 선교기관과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고, 국어사용이 금지되었다. 1938년 9

1) 이 글은 연세 창립 · 제중원 개원 1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연세의료원 선교의 과거, 현재, 미래(연세대학교 의료원, 2015년 5월 14일)에서 발표된 “전환기의 세브란스: 한국인 리더십 하의 선교활동(1934-1957)”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기독교장로회 총회를 통해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1939년부터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시작되었고, 1940년부터는 학내에 일본인 장교가 배속되어 군사훈련을 강제하고 학내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교육정책에서도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하여 일본식 교육체제에 순응하는 경우에는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고, 반발하는 경우에는 폐교 등을 강행하는 식으로 학교당국을 길들이 나갔다. 무엇보다 일제 강점 하에서 사립의학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 지정 혹은 일본 문부성의 지정을 받지 않으면 의사면허 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하는 등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일제하에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지정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서야 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는 일본식 교실체제에 적응해 나갔고, 교수진들도 점차 일본인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1942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교명을 아사히(旭) 의학전문학교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동안 세브란스의 선교활동은 암흑기였다. 일제의 탄압과 간섭, 해외 원조의 중단 속에서 선교활동은 지지부진하였다. 다만 오궁선, 김명선 등 개인에 의한 보육사업과 양로사업만이 빛을 빌했다.

해방 이후 혼란기 속에서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1947년 세브란스연합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세브란스에서 활동하던 다수의 교수진들이 공직과 여타 의과대학으로 진출하면서 세브란스인들의 활약상을 과시했다.

한국전쟁이 의학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학교와 병원이 파괴되어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고, 의사와 간호사 등의 납북과 사망 등 인력공백도 상당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잣더미 속에서 미국식 의학과 의약품이 대거 공급되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주었다. 세브란스의 선교활동은 피난민 구제와 전재민 진료 등 주로 전후 구호사업에 치중하였다.

이 시기 동안 세브란스재단이사회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오궁선(재임 1934-1942)을 선출하였고, 오궁선에 이어 이영준(재임 1942-1945), 최동(재임 1945-1948), 이용설(재임 1948-1952 학장), 김명선(1952-1957 학장, 1957-1960 의무부총장) 등이 교장, 학장, 의무부총장 등으로 임명되었다. 병원장으로는 이영준, 윤치왕, 오한영, 이학송, 최재유, 정기섭, 문창모, 이용설 등이 재직했다. 이 시기는 세브란스병원과 학교가 에비슨과 외국인 의료선교사에 의한 성장기를 거쳐 한국인에 의해 병원과 학교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 퇴출, 창씨개명 및 신사참배 강요, 강제교명 변경 등이 강제되었던 일제강점하의 암흑기, 해방의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도 오궁선, 이영준, 최동, 이용설, 김명선 등은 병원과 학교를 지켜내기 위한 사투를 벌였으며, 다양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며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20여년 동안 세브란스의 역사나 선교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일천한 수준이다. 특히 이 시기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고, 세브란스병원사만이 개별 자서전이나 학교사에서 개설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거의 유일한 예외는 해방과 한국전쟁시기 세브란스의 구호활동을 다룬 여인석의 최근 연구이다.²⁾ 이 연구는 일제 말기, 해방,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암흑기의 세브란스의 활약상을 검토하고, 세브란스의 선교활동을 이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사진 1. 전환기의 세브란스 지도자들(1953. 4. 29): 가운데부터 왼쪽 방향으로 오궁선(2대 교장), 이영준(3대 교장), 김명선(6대 교장), 이용설(5대 교장), 최동(4대 교장)

2) 여인석,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세브란스」,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외, 『해방 후 연세학풍의 전개와 신학문 개척』(도서출판 혜안, 2015).

II. 한국인 교장 시대의 개막과 일제의 선교사 탄압

1893년 내한 이래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은 제중원과 세브란스에서만 40여년 이상을 재직하였고, 1934년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세브란스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던 생리학의 제임스 반버스커크를 비롯하여 소아과의 D. B. 에비슨, 산부인과의 제시 허스트, 외과의 알프레드 러들로, 정신과의 찰스 맥라렌 등 쟁쟁한 교수들이 포진해 있었다.

에비슨은 평소 한국인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인 스스로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교파를 초월한 연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소신에 따라 에비슨은 남장로교 출신의 오궁선(1878-1967)을 차기 교장에 지명하였다. 오궁선에 지명에 가장 당혹해한 사람은 현직 부교장인 반버스커크와 병원장인 D. B. 에비슨이었다. 결국 반버스커크는 미국에 귀국하는 것으로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D. B. 에비슨은 부교장으로 임명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사실 오궁선의 등장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오궁선은 켄터기주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07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군산에 파송되었다. 세브란스연합의학교가 교과연합에 의한 의학교육을 준비하면서, 1912년 오궁선은 에비슨의 요청으로 남장로교를 대표하여 세브란스에 파송되었다. 오궁선은 1921년 학감으로 임명되었으며, 1930년에는 부교장으로 임명되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운영과 제도개혁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3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기독교장로회 총회를 통해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1938년 신사참배를 거부한 숭실학교가 폐교되는 등 일제의 선교 탄압이 강화되면서 한국에서 선교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단지 의료선교사들의 의료활동만 명백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39년부터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강제송환이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일제는 선교사들의 모든 공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특히 1940년 12월 일본이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개시하면서 일제는 선교사들을 전쟁포로로 취급해 선교사들에 대한 구속과 억류를 감행했다.

1940년부터는 학내에 일본인 장교가 배속되어 군사훈련을 강제하고 학내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기 시작했다. 1939년 이후 소아과의 에비슨 교수, 내과 마틴 교수, 안과 앤더슨 교수, 신경정신과 맥라렌 교수 등이 차례로 귀국을 강요받았다.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세브란스연

합의학전문학교 내의 교수진들도 점차 일본인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세브란스의 선교사 중에서도 신경정신과의 찰스 맥라렌 교수(Charles Inglis McLaren: 1882-1957)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맥라렌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는 호주 장로교의 전통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맥라렌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국가에 대한 교회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에 모두 반대하고 개인의 양심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라렌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신사참배가 단순한 우상숭배에 그치지 않고 군국주의적 민족주의로 향해가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맥라렌은 군국주의와 천황이데올로기를 본질로 하는 신사참배가 개인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 전쟁을 일으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다.³⁾

1941년 4월, 맥라렌은 가족을 호주로 먼저 보냈다. 같은 해 12월 8일,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같은 날 일본 경찰은 맥라렌을 체포하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본의 적국인 나라의 선교사들은 모두 체포 대상이었다. 맥라렌은 신사참배도 거부했기 때문에, 일제가 그를 체포, 구금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는 경찰서의 감방에서 70일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1942년 2월 23일에 석방되었다. 석방 후, 맥라렌은 호주 선교사들이 연금되어 있던 부산으로 보내졌다. 3개월 동안 연금상태로 지낸 후, 맥라렌은 1942년 6월 2일 한국에서 추방되었다. 맥라렌은 한국에서 추방된 후에 일본 고베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2개월을 보냈다. 일제는 포로로 잡힌 자국민을 석방하기 위해 선교사들과 교환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맥라렌은 아프리카까지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호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호주로 돌아간 그는 반일운동과 일본의 국가신도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는 언론활동을 지속했다.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한국에 남아있던 선교사였다.⁴⁾

오궁선이 정년퇴임하자, 1942년 같은 교실에 있던 피부과의 이영준(1896-1968)이 제3대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개전으로 일제는 내선일체를 통해 국가총동원을 통한 전면전쟁을 가속화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인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황국신민화와 민족말살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라는 학교명도 개명하지 않으면 폐교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 당시 총독인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는 세브란스라는 명칭을

3) 민성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맥라렌 교수의 생애와 사상』(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163-165.

4) 민성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맥라렌 교수의 생애와 사상』, 166-173.

대신하기 위해 직접 아사히(旭)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 1943년부터는 일본인 2명이 입학하기도 했는데, 일본인이 입학한 것은 세브란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30년대 후반 전쟁의 가속화와 선교사 탄압으로 세브란스에서 선교활동이 공식적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웠다. 세브란스 출신 졸업생들은 전국 각지의 구세병원 등지에서 의료선교 활동에 참여했지만, 학교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세브란스의 선교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1. 오궁선의 선교활동과 보육사업

오궁선(吳競善: 1878-1967)은 루이빌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남장로교 의료선교사로 군산지역에 파송된 이래로, 군산, 광주, 목포 일대에서 선교병원의 병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밖에도 오궁선은 교육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1912년 교파연합에 의한 세브란스 연합의학교의 의학교육이 시작되자, 오궁선은 미국 남장로교를 대표하여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 파송되었다.

1919년 10월, 7명의 고아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오궁선은 남대문시장의 '물산객주'였던 김병찬에게 보내 고아들을 수용하게 했다. 김병찬의 자택에서 임시로 기거를 시작한 이들 고아들을 위해, 오궁선은 윤치호, 김병찬 등과 함께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1920년 2월, 경성고아구제회가 창립되었는데, 윤치호가 회장, 오궁선이 부회장, 김병찬은 이사 등으로 선출되었으며, 임원진은 40여명, 발기인들만 400-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인 호응도도 높았다.

보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매우 중요했는데, 오궁선은 부지매입을 위해 언더우드와 에비슨 등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기독교계를 총동원하였다. 1930년 『중외일보』 기사에 따르면, 1921년 언더우드가 만여 원짜리 부지를 기부하였고, 에비슨 박사가 약품을 제공해주었다고 한다.⁵⁾

1922년 5월, 재단법인 경성보육원이 출범했다. 오궁선은 윤치호, 김병찬 등과 함께 경성 보육원의 공동설립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⁶⁾ 1935년 11월, 오궁선은 경성보육원의

5) 「조선의 페스탈롯치 김병찬 선생을 방문하고」, 『중외일보』, 1930년 5월 26일.

6) 한규무는 경성보육원의 성장과정에서 오궁선의 역할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궁선을 설립자로 보는 시각에는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1936년 9월, 오궁선은 안양분원(농장)인 안양기독보육원을 설치하여, 16세 이후 경성보육원을 퇴소한 원아들이 부랑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안양기독보육원의 원아들은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농원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다. 1937년 6월, 오궁선은 경성 옥천정의 본원을 청운정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1942년 12월에는 오궁선의 추천으로 김명선이 신임 이사로 취임하였다.

일제시기 보육시설은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는 조선총독부 제생원 양육부 이외에 경성보육원을 비롯하여 6개의 보육시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경성보육원은 사립 중에서는 최대 규모였고, 원내 정원은 조선총독부 제생원을 능가하기도 했다. 1939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육기관으로서 200여명이 넘는 고아가 수용되어 있었고, 20년 동안 1천여 명이 경성보육원을 거쳐 간 것으로 평가되었다.⁷⁾ 1922년 오궁선은 재단법인 경성양로원을 설립하였는데, 이것 역시 국내 최초였다. 그러나 1930년 경성양로원은 해산되었다.

1942년 퇴직 후, 오궁선은 안양기독보육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보육원 사업에만 전념하였다. 아울러 보육원의 활동중심도 경성에서 안양으로 이전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보육원을 부산 가덕도로 이전하고 고아들의 피난을 도왔다. 그는 평생토록 3,000여명의 고아들을 돌봐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안양기독보육원은 1972년 기독보육원, 1998년 해관보육원, 2007년 좋은집(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으로 개칭되었다.

2. 김명선의 평양연합기독병원 활동

미국 북장로회는 1895년 이래로 평양에 진료소를 개설하여 의료선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1906년 래드(Caroline A. Ladd) 의료선교사는 평양에 제중병원(Ladd Hospital)을 설립했는데, 훗날 평양기독병원으로 개칭되었다. 미국 북감리회 출신인 윌리엄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은 1892년 평양에서 의료선교를 시작하였는데, 1894년 발진티푸스에 걸려 사망하였다. 1897년 그의 아내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

인색하다. 경성보육원 설립초기에는 임원 구성에서 보듯 윤치호(회장), 오궁선(부회장), 김병찬(이사) 등이 각자 역할을 하였고, 오궁선은 부지매입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오궁선은 이사장과 원장 등을 맡으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규무의 시각은 한규무, 「경성보육원의 설립과 운영」, 『향토서울』79, (2011. 10), 234-235를 참고.

7) 「이십년동안 버린 얘기 일천명을 키웠다」, 『조선일보』, 1939년 6월 14일, 4.

이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紀忽病院, The Hall Memorial Hospital)을 개원하였다. 1915년 평양 제중병원은 기홀병원과의 통합을 모색하였고, 1920년 평양 제중병원과 기홀병원이 합병되었으며, 1923년에는 광혜원과도 합병되어 평양연합기독병원이 되었다. 평양연합기독병원은 미국인 의료선교사들이 병원 운영을 책임져 왔고, 선교병원으로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와는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었다. 그 덕에 평양연합기독병원의 적지 않은 의료진들이 세브란스 출신으로 충원되었다.

1938년 9월, 일제는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기독교계에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이 발발하면서 일제의 외국인 적대와 선교사 탄압은 극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하나 둘씩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평양연합기독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앤더슨(A. G. Anderson, 한국명 安道宣) 박사도 미일간의 적대행위가 심화되자, 귀국을 고려하고 있었다. 1940년 5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이용설 교수의 추천으로 장기려 박사가 평양연합기독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임명되었는데, 1940년 11월, 앤더슨 박사가 귀국하자 장기려 박사가 병원장이 되었다.

장기려 박사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으로 외과 분야에서는 명망이 높았던 백인제 박사의 수제자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외과의사로서 명성을 갖고 있었지만, 외과 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 인물이 병원장까지 맡을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다. 결국 평양연합기독병원 이사회는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오궁선 교장의 추천을 받아 김명선 교수를 평양연합기독병원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김명선 교수는 주초 3일은 세브란스에서 일하고, 주중 3일은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갔다. 김명선은 1941년 2월 1일 평양연합기독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되어 5년 동안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다녔다.

평양연합기독병원은 평양의전 부속병원보다 규모가 크고, 장기려 박사를 비롯하여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이 많이 있어 평양에서 제일가는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떠나고 선교부의 지원도 끊기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명선이 병원장으로 임명되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돈만 낭비할 뿐 병원 운영은 실패할 거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김명선은 병원내 다수파의 질시를 받던 장기려 과장에 대해서도 진료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인상하였는데, 이 역시 내부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김명선은 병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적에 대한 보상과 직원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착실히 진전시켰다. 일단 직원들의 월급을 인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평양소재 조홍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밀린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경쟁과 보상을 통해 병원의 활기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분열과 폐배주의로 물들었던 평양연합기독병원은 점차 협력과 성과를 내는 병원으로 일신될 수 있었다.⁸⁾

1940년대 평양연합기독병원은 3채의 단독건물에서 126병상 규모를 갖추었고, 직원은 120여명, 의료진은 의사 14명, 간호사 23명, 학생간호사 38명 정도였다.⁹⁾ 1940년대 평양연합기독병원에 근무했던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로는 임정섭(30년졸), 오신건(30년졸), 유기원(31년졸), 박소암(32년졸), 조동협(33년졸), 양요환(34년졸), 최용기(35년졸), 민광식(36년졸), 강인홍(38년졸), 신복균(39년졸), 엄봉진(39년졸), 장익서(39년졸), 김봉수(40년졸), 김인명(40년졸), 조석우(40년졸), 문병기(42년졸), 홍필훈(42년졸) 등이 있었다.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 세브란스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다.

3. 문창모의 해주구세병원 및 해주구세요양원 활동

해수가 미국 북감리회 선교구역이 되자, 1909년 11월, 켄트(Edwin W. Kent)가 해주진료소를 개원하였다. 1910년 11월, 노튼(Arthur H. Norton)이 켄트의 후임으로 해주병원을 운영하였다. 노튼은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자신의 모친을 기념하는 병원을 건립하였는데, 노튼기념병원(Lovisa Holmes Norton Memorial Hospital)이라 하였다. 이 병원은 해주 최초의 근대식 병원으로 해주에서는 해주구세병원으로 불렸다.

1926년부터는 셔우드 홀(Sherwood Hall)이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920년대 조인모(23년졸)가 해주구세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1935년부터는 김중렬(33년졸)이 근무를 시작했다. 김중렬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정신과에서 찰스 맥라렌과 이중철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김중렬은 해주구세병원에 통역겸 부원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일했다. 당시 해주구세병원에는 원장, 부원장, 검정의사 등 3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다.¹⁰⁾

문창모(1907-2002)는 평북 선천 출신으로 해주에는 처가가 있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

8) 김명선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도서출판 큐라인, 1998), 167-174.

9)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692-694.

10) 여인석, 『김중렬 선생님 탐방기』, 『연세의사학』 2-4, (1998. 9), 573.

학교 재학시절부터 방학을 이용하여 3년여 동안 해주구세병원에서 실습을 했다.¹¹⁾ 문창모는 1931년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과 경성제대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다가 1932년 5월부터는 해주 구세병원에서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결핵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1932년 크리스마스 셀 판매를 통해 병원 확장 기금을 마련하는 등 셔우드 홀의 결핵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35년부터는 김중렬도 결핵퇴치사업에 참여하였다.¹²⁾

해주구세요양원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박 에스더(본명 김점동: 1879-1910)가 결핵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셔우드 홀이 결핵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박 에스더는 셔우드 홀의 어머니인 로제타 홀을 도와 미국 감리회 선교병원을 이끌던 인물이었다. 1926년 7월, 셔우드 홀은 해주에 도착하여 해주구세병원 원장으로 봉사하다가, 1928년 10월, 20병상 규모의 해주구세요양원을 개원하기에 이른다. 해주구세요양원은 흔히 해주결핵요양원 또는 해주구세의료원 등으로 불린다. 해주구세요양원은 결핵요양원으로서는 평양에 이어 두 번째였으나 근대적 설비를 갖춘 전문요양원이었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결핵전문 병원으로 평가된다. 해주구세요양원은 1937년에는 50병상 규모로 확장되었는데, 1940년 8월, 셔우드 홀이 간첩혐의로 체포되고, 1941년 11월 강제 추방되었다.

문창모는 해주 구세병원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평양연합기독병원으로 전출되어 이비인후과 강해룡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다. 그는 3년 동안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백령도 인근 용호도 공의로 3년간 일했다. 그는 은사인 강해룡의 요청으로 신의주 강해룡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다가 해주로 돌아가 평화의원이라는 안·이비인후과를 개설했다. 셔우드 홀이 강제 추방되자, 문창모가 해주 구세병원의 병원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식민당국은 해주구세병원이 미국인의 적산이라며 강제로 폐원시켰다.¹³⁾

4. 고병간의 함흥 제혜병원 활동

캐나다 장로회는 원산, 함흥, 성진 등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함흥에서는 1903년 케이트 맥밀란(Kate McMillan: 1868-1922, 한국명 맹미란) 여의사에 의해서 시작

11) 문창모, 『천리마 꼬리에 붙은 쉬파리』(삶과꿈, 1996), 62-94.

12) 김중렬, 「해주지방 모교동창생소식」, 『세브란스교우회보』 25호, (1936. 2. 1), 64.

13) 문창모, 『천리마 꼬리에 붙은 쉬파리』, 88-133.

되었다. 1913년 5월, 맥밀런은 40병상 3층으로 된 함흥 제혜병원(Hamheung Canadian Mission Hospital)을 완공하였다. 그러나 1922년 맥밀런은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1923년에는 캐나다 노바스코샤 출신 플로렌스 머레이(F. J. Murray, 한국명 모례리) 여의사가 제2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세브란스 출신인 고병간(25년졸)은 1927년부터 외과과장으로 맡아 10년간 근무하였다.

1935년 고병간은 잠시 병원장 서리직을 맡기도 했는데, 1936년에는 동경제대에 유학하였고, 1938년부터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외과 교수로 활동하였다. 1941년부터는 머레이가 강제 추방됨에 따라 머레이의 뒤를 이어 고병간이 함흥 제혜병원의 제3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함흥 제혜병원에는 83병상 규모를 갖추고 70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큰 병원이었다.¹⁴⁾

III. 해방과 한국전쟁기의 세브란스

해방과 한국전쟁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의료계로서도 혼란과 파괴의 시기였다. 또 한편으로는 재건과 도전의 시기이기도 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인들이 대부분 본국에 송환됨에 따라 한국사회는 많은 영역에서 인적 공백상태에 빠지게 됐다. 의료계도 사립인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제외하면 교수진들의 인적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세브란스는 학계와 정계에 적지 않은 인사들을 진출시켜 한국사회의 재건을 도왔다.

학계에서는 병리학교실의 윤일선이 경성대학 의학부 병리학 교실로 부임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을 역임했다. 내과학교실의 심호섭은 경성대학 의학부로 자리를 옮긴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대 학장을 지냈다. 약리학교실의 이세규, 내과학교실의 장경, 해부학교실의 정일천 등도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비뇨기과학교실의 이학송은 서울대학교 비뇨기과학교실의 주임교수를 지냈다. 외과학교실의 고병간은 대구의학

14) Florence J. Murray, "Medical Work in the Canadian Mission", *KMF* (May 1941), 78; Florence J. Murray, "The Tiger Year in the Hamheung Hospital", *KMF* (Sep. 1939); *Foreign Missionary*, 184;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717.

전문학교 교장을 거쳐 경북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다. 안과학교실의 최재유는 행림원 초대 원장을 거쳐 이화의대 부속병원장 등을 지냈다.

정계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군정기 초대 보건후생부장을 지낸 이용설을 비롯하여, 초대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보건부장관을 지낸 구영숙(1948-1950 재임), 오한영(1950-1952), 최재유(1952-1955) 등이 있다. 이용설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흥사단 사건에 연루되어 교직을 그만두고 개업의로 활동했다. 해방이 되자 서울에 있던 400 여명의 의사들은 건국의사회를 조직하여 일본인들의 의사조직과 병원 등을 접수하고 전재동 포구호단을 조직하여 전재동포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용설은 건국의사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¹⁵⁾

세브란스 내부적으로는 1945년 제4대 학장으로 최동(1896-1973)이 임명되었고, 1948년 제5대 학장으로 이용설(1895-1993)이 임명되어 혼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갔다. 해방 이후 최동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세브란스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재정을 자립시키는 것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을 지탱해주던 선교사들도 떠났고, 식민기관으로 재편하여 운영하던 일제가 폐망하면서 세브란스에는 어떠한 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재정적 기반을 상실한 상태였다.¹⁶⁾ 최동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해준 인연으로 잘 알고 지내던 전남 강진의 부호 김충식 씨로부터 1억 원의 부동산을 기부받기도 했다.¹⁷⁾ 해방 직후 세브란스병원과 학교가 선교활동에 나설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중에도 최동은 의학전문학교를 의과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를 차실히 해나갔다. 그 결과 1947년부터는 6년제 세브란스의과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할 수 있었다.

해방 전후 세브란스의 위상을 알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의료상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은 의료기관의 국영화 조치를 강화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료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북한은 1945년 해방 당시 42개의 병원(1,135병상), 37개의 진료소, 1개의 전염병원(50병상)이, 1947년 상반기에는 115개의 병원(3,251병상), 154개의 진료소, 7개의 전염병원(375병상)이 설립되어 해방 당시에 비해 병원 규모가 2.8배에서 7배에 이르는 급신

15) 여인석,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세브란스」,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외, 『해방 후 연세학풍의 전개와 신학문 개척』.

16) 이규식 · 양정필 · 여인석, 「최동의 생애와 학문」, 『醫史學』 13-2, (2004. 12).

17) 「세의대에 金忠植씨 특지」, 『조선일보』, 1947년 8월 22일, 2.

장을 거듭했다.¹⁸⁾ 아울러 해방 이전부터 존속했던 평양의학전문학교와 함흥의학전문학교를 의학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1948년에는 청진의학대학, 평남의학전문학교, 해주의학전문학교, 강계의학전문학교, 신의주의학전문학교 등을 설립하는 등 의료인력의 양성에 힘썼다. 이로써 해방 당시 230명(의학교 학생 80명)에 불과했던 예비 의료인력 수는 1947년에는 3,680명(의학교 학생 1,523명)으로 무려 16배(의학교 학생 수는 19배)로 증가했다.¹⁹⁾

그러나 1949년 당시 북한의 의사 수는 1,000명(일제시기 의학교 졸업자 350명, 해방 이후 의학교 졸업자 400명, 남한의 한지의사급 250명) 정도로 남한의 인구당 의사비율이 5,800:1인 것에 비교하여 9,500:1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의료인력 양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체 의사의 70%가 남한으로 대거 이주한 것에 기인한다.²⁰⁾

당시 남한의 의료인력과 시설은 북한의 4배에 이른다고 평가받았는데,²¹⁾ 실제로 1945년 9-11월 미군정의 보고에 의하면, 남한은 인력이나 규모면에서 북한의 3-4배에 이르는 총 181개의 병원(서울에 10개 병원, 1,620병상), 3,381명의 의사, 573명의 치과의사, 1,163명의 정규교육 간호부, 943명의 조산부, 42개의 결핵요양소(환자 1,248명), 3개의 나병요양소(환자 8,000명)가 있었다.²²⁾

1939년 당시 남한의 의사 수는 2,970명(한지의사 394명 제외)이고, 1944년 말에는 2,743명(한지의사 1,017명)이었다는 기록으로 보아,²³⁾ 대다수 의사들이 남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1945년 3,381명이라는 통계 수치에는 한지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해방 직후 남한에는 1개의 의학부(경성대학 의학부)와 6개의 의학전문학교(경의전, 세브란스의전, 서울여의전, 이화의전, 대구의전, 광주의전)이 있었고, 매년 신입생만도 420-500여명에 달했다.²⁴⁾ 그 결과 1949년 12월 남한의 의사수는 4,375명(한지의사 704명)에 달했다.²⁵⁾

18) 홍순원, 『조선보건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441-484.

19) 박윤재·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의사학』 7-1, (1998. 7).

20) C. C. Choi, *Public Health in Korea*, (1949), 9.

21) 홍순원, 『조선보건사』, 454.

22) GHQ, SCAP,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1(1945 Sep.-Nov.) Part V Section 3, 17-25; 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의사학』 9-2, (2000. 12)에서 재인용.

23) 최옹석, 「현단계 보건행정의 근본적 임무」, 『조선의학신보』 제2호, (1947. 5), 17-20; 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의사학』 9-2, (2000. 12).

일제하 의학교에서는 매년 300여명(한국인 112명, 일본인 18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²⁶⁾ 해방 이후 1945-1949년 사이 남한에서는 대략 1,000여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6개 의학교에서 매년 25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정원은 1923년 30명에서, 1931년 40명으로, 1940년 60명으로 증가되었다.²⁷⁾ 이영준 교장시기에 정원은 일시적으로 100명까지 증원되었고, 1950년 이후로 70명이었던 정원은 1951년 50명으로 다시 줄었다.²⁸⁾

해방 이후 신탁통치의 실시, 미군정의 실시와 남한 단독정부 성립, 소련군정과 북한 단독정부 성립 등 남북한 의료는 단절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남북한이 단절됨에 따라 북한의 수 많은 선교병원과 세브란스 졸업생의 선교활동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10월, 김일성이 북조선 보건연맹위원장인 최웅석에게 의사들의 사상개조와 자진해서 국가기관 편입을 지시함에 따라, 해방 직후 국가기관이 종사하는 의사들보다 16배 이상 많았던 개원의들은 대부분 국가기관으로 편입되었다.²⁹⁾ 북한의 선교병원 탄압으로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남한으로 탈출하거나 피난을 떠났다. 해방 이후 북한의 선교병원들은 국가기관으로 재편되었고, 평양연합기독병원에 남아서 활동하던 장기려는 평양의학전문학교의 교수와 부속병원장 등으로 임명되었고, 함흥제혜병원에서 활동하던 최명학(31년졸)은 함흥의과대학 학장 등으로 활동했다.³⁰⁾

한국전쟁의 별별로 인해 의료분야의 인적 재원과 물적 토대는 대부분 손실을 입었다.

24) 국립보건원, 『WHO-UNKRA 보건사업 기획사절단 보고서』(국립보건원, 1961), 177; 신오성, 「한국전쟁 전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 1945-1959」, 서울대 보건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25에서 채인용; 佐藤剛藏, 이충호 역, 『朝鮮醫育史』(형설출판사, 1993)에서는 해방 당시 6개교의 입학정원은 420명이었다고 한다.

25) In-ho Chu, *Public Health Reports in Korea* (1951), 26.

26) In-ho Chu, *Public Health Reports in Korea*, 33; C. C. Choi, *Public Health in Korea* (1949), 26.

27)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연세대학교출판부, 1969), 98, 166.

28)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 194.

29) 홍순원, 『조선보건사』, 470-473.

30) 1945년부터 1951년까지 평양의학전문학교, 김일성대학 의학부, 평양의학대학 등에서 근무한 총 205명의 재직인원 중에서 50명(24.4%)이 월남하였다. 박형우, 「해방 직후 북한의 의학교육에 관한 연구」, 『남북한 보건의료』 3,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3).

1953년 6월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피살당한 의사가 58명, 납치된 의사가 17명, 간호사 300명 이상이 피살 혹은 행방불명되었으며, 보건부 직원 15명이 피살 되었다.

의료기관은 사립병원 3,155개 중 450개가 전파, 1,065개가 반파, 국공립 종합병원 54개 중 10개가 전파, 36개가 반파되었다. 또, 제약공장 159개 중 10개가 전파, 133개가 반파되었으며, 각종 연구시설 역시 161개가 전파, 361개가 반파되었다.³¹⁾ 시설물 피해는 X선 기계 144대를 비롯해 병원 내의 모든 약품은 거의 퍼탈 당했고, 시설 피해액은 48억 7,933만 원에 달했다.³²⁾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의 위치가 서울역 앞의 시내 중심가였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그 피해는 막심하였다. 우선 생화학교실의 김상민 교수와 해부학교실의 노유구 강사 등이 희생되었고, 다수의 직원과 학생들이 납치, 실종, 사망하였다. 1950년 9·28 서울 수복과정에서 시가전을 벌이던 공산군들이 세브란스병원에 방



사진 2. 한국전쟁시기의 세브란스병원: 한국전쟁으로 세브란스는 85% 이상이 파괴되었다.

31) 최제창, 『한미의학사: 의사의 길 60년을 돌아보며』(영림카디널, 1996), 290.

32) 신오성·이우천, 「한국전쟁이 보건의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학회지』 2-1, (1992), 90.

어선을 구축함에 따라 연합군의 집중포화가 이어졌고, 1951년 1·4 후퇴 과정에서 재차 피해가 더해져 세브란스의 건물은 85%가 파괴되었고, 시설물들은 100% 파괴되었다. 그 피해액은 공식적인 조사로는 87만 3천 달러였지만, 실제로는 총 1백만 달리가 넘었다.³³⁾

1. 해방 이후 세브란스의 구호활동

해방 이후 독립운동, 강제징용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던 동포들이 속속 귀환 길에 올랐다. 이역만리에서 고향으로 귀향하기 위한 귀환 동포들의 첫 관문은 서울역이었고, 서울역을 통해 또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 사람들을 만나고 열차를 기다리던 서울역은 어느새 거대한 수용소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서울역 앞 남대문교회에 전재민구호소가 설치되어 귀환 동포들의 병 치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점차 전재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먹고 자는 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서울역 앞의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생들은 혼란 속의 동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세브란스학도대를 조직하여 구호활동과 치안유지에 적극 나섰다. 학도대 대장은 4학년 윤복영, 부대장은 4학년 나도현이 맡았다.³⁴⁾ 세브란스학도대의 활동은 크게 구호활동과 치안유지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구호활동은 귀환동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치료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기력을 회복하여 고향을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편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서울역의 지원을 받아 세브란스학도대가 무임승차권을 대행·발행하였다. 그에 따라 세브란스학도대가 관리하는 구호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치안유지 활동에는 서울역 주변과 남대문서부터 남영동 일대의 질서유지와 청소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세브란스학도대는 위아래 하얀 제복을 입고 모자를 썼기 때문에, 눈에 잘 띠었고, 시민들은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했다.³⁵⁾

구호활동 가운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귀환동포를 수용할 장소를 찾는 일과 식량과 의복 등 각종 구호물품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세브란스 구내 교회와 운동장 등지에서 수

33)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연세대학교출판부, 1969), 206-208.

34) 훗날 윤복영은 전상 신경외과의 개척자가 되었으며, 나도현은 보사부차관, 국립의료원장 등을 역임했다.

35) 「해방과 세브란스 학도대의 활동」, 『연세의사학』 6-2, (2002. 12), 68-71; 신규환·박윤재, 『제중원·세브란스 이야기』(역사공간, 2015), 250-260.

용 장소를 확보했지만, 점차 귀환동포가 많아지자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서울역 맞은편의 고아시설인 향린원과 일본인 청주 양조장에서 경영하던 긴치요(金千代) 회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의 필요한 식량과 물품은 건국준비위원회, 재외동포구제회, 서울시청 등 의 지원을 받았다.

세브란스학도대는 학업에 열중해야하는 학생신분으로 일시적으로 조직된 것이었기 때문에, 구호활동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웠다. 학교 당국의 학업복귀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구호사업을 재외동포구제회에 넘기고 학교로 복귀하였다. 학도대가 재외동포구제회에 인계한 내역을 보면, 학도대가 수용하여 구호한 연인원은 75,840명, 현금 148,806원, 백미 14가마, 의류 3트럭분 등이었다.³⁶⁾ 세브란스학도대의 활동은 2개월여에 걸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귀환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자발적인 학生活동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생들의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활동은 평소 기독교의 봉사와 나눔을 강조해온 창립정신에 입각한 것으로서 애국 청년들의 자연스런 실천이었다.

2. 한국전쟁기 세브란스의 구호활동

1948년 9월, 3년 동안 미군정청 보건후생부장을 지낸 이용설이 세브란스의과대학의 제5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그와 동시에 문창모가 병원장에, 김명선(1897-1982)은 부학장으로 취임했다. 세브란스로서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이용설을 통해서 세브란스가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용설이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1954년까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매우 바쁘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로는 김명선과 문창모 등이 중심이 되어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을 꾸려나갔다.³⁷⁾

1951년 5월, 대한민국 정부는 문교부령 제19호로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1951. 5. 4)을 공포했다. 이 법령의 핵심은 전쟁으로 인해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대학생들에 대해서 타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치에 따라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청주, 대구 등지에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여 대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3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1986), 144; 신규환·박윤재, 『재중원·세브란스 이야기』(역사공간, 2015), 259.

37) 이유복, 「이용설 선생과의 대담」, 『연세의사학』 2-5, (1998. 12), 680-681.

조치로 1950년에 한해 수업을 720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매학기 6시간 내지 8시간의 군사교육을 받아야 했다.³⁸⁾

전시연합의과대학은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설치되도록 했는데, 부산시 광복동 2가 3번지 동주여자상업학교 자리에 설치되었다. 서울의대, 세브란스의대, 서울여자의대, 대구의대, 광주의대 등의 5개 의대의 학생들이 전시연합의과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이화의대만 따로 수업을 하였다. 당시 학장은 이제구 서울의대 교수였고, 교무과장은 남기용 교수였다. 교직원수는 교수 21명, 부교수 8명, 조교수 22명, 강사 14명이었다.³⁹⁾

북한에서 내려온 평양의대, 함흥의대 출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다. 서울대 의대에 편입한 학생은 1951년 9월 당시, 1학년 12명, 2학년 22명, 3학년 18명으로 총 52명이었다.⁴⁰⁾ 강의는 구술 위주였고, 해부 외에는 실습이 진행되기 어려웠다. 1952년 4월, 부속병원이 학교와 가까운 중구 신창동 대각사에 개원하여 학생 실습을 도왔다. 전시연합의과대학은 1952년 5월 31일 공식 해체되었는데, 이미 1951년 9월경부터 몇몇 의과대학들이 독립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1·4후퇴 이후 완전철수를 결정한 세브란스의과대학은 부산에 본부를 설치하였고, 병원과 간호학교는 거제도에 설치하였다. 전쟁과 피난의 와중에서도 전시연합대학에서 1952년 18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기도 했다.

세브란스병원과 간호학교가 거제도에 설치된 데에는 김명선의 인연과 역할이 컸다. 평양 솔실전문학교 출신인 진도선은 평양연합기독병원 병원장인 김명선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도선이 거제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거제도에 내려와 보니, 거제도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의료취약지구였다. 1949년 그는 이런 사정을 김명선에게 알리고 거제도에 근무할 수 있는 의사 한 명을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김명선은 레지던트 3-4명을 선발하여 3개월씩 번갈아가며 근무하도록 했다. 그들은 모두 1948년 졸업생으로 이한주, 노경병, 이삼열, 김인성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YMCA 임원들로 평소 무의총진료 등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1949년 아래로 거제도 진료소에서 세브란스 출신들이 진료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거제도가 세브란스병원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⁴¹⁾

38) 「문교부령 제19호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 『관보』 465, (1951. 5. 4).

39) 전종휘, 「전시연합대학에서의 활동」, 『의사학』 9-2, (2000. 12), 256-257.

4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946-2006)』(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08), 69.

거제도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섬이었지만, 피난민이 내려오면서 30만 명이 체류하게 되었다. 거제도 세브란스병원은 처음에는 진료소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피난민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병원 규모도 점차 확장되었다. 미군이 각종 약품, 소모품, 발전기 등을 지원함에 따라 엑스레이, 치과, 수술실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마련한 20병상 규모의 입원실은 부족하여 50병상 규모의 YMCA 강당을 사용하였는데, 이마저도 부족했다. 결국 미군측의 도움으로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진찰실과 입원실을 확장하였고, 피난민에 대한 무료진료도 확대되었다. 특히 민사원조사령부(CAC; Civil Assistant Corps) 본부가 장승포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최신 의약품을 무상으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세브란스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나온 이병태와 이영복 등이 CAC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제도 세브란스병원의 의약품 조달을 지원하였다.

거제도 세브란스병원은 외과 황규철, 이근영, 김광희 교수 등이 있었고, 이비인후과 윤상하 교수, 치과 이동섭 교수 등이 활동했다. 전시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부학교실의 최금덕 교수가 산부인과 과장을 담당했고, 생리학교실의 이병희 교수가 소아과장으로 담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개업 중이던 이삼열, 노경병 등이 수시로 병원업무를 도왔다. 나중에서 울여자의과대학 출신 여의사 2명이 소아과에 합류하였다.⁴²⁾

간호학교에는 아금전 간호부장, 김재금 사감, 샌들 선교사 등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였다. 당시에는 임상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창모 병원장은 거제도 세브란스병원에 간호학교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다.⁴³⁾

세브란스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오한영 보건부장관은 전재민의 구호와 진료를 위해 전국 중요지역에 구호진료소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세브란스에도 구호병원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⁴⁾ 1951년 1월 15일, 이용설 학장과 문창모 병원장은 거제도 구호진료소를 피난민 구호병원을 설치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구호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정부에서 요청한 경상남도 청도(밀양)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았는데, 문창모 병원장은 세브란스의과대학 3·4학년 위주로 실습진을 꾸려 청도 구호병원을 개설하였다.⁴⁵⁾ 청도

41)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연세의사학』 7-2, (2003. 12), 114.

42)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연세의사학』 7-2, 116-119.

43)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연세의사학』 7-2, 121.

44) 김명선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도서출판 큐라인, 1998), 241-244.

구호병원은 1951년 4월부터 7월까지 14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 중 110명이 사망하고 32명의 결핵환자는 요양원으로 후송하였다.

1951년 5월 하순에는 위생학교실의 심상황 교수가 일부 직원들과 함께 서울에 복귀하여 구호진료소를 세브란스병원 외래환자 진료소에 개설하였다. 1951년 7월, 미8군 책임자는 피난민들과 군노무자들이 많은 원주에 임시로 병원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공터에 천막을 치고 200여명을 수용하였으며, 점차 추위가 다가오자 흑벽돌로 병실을 지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문창모가 이끄는 원주 구호병원은 1952년 3월에 철수하였다.⁴⁶⁾ 이 일은 문창모로 하여금 원주에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브란스병원은 거제도 이외에도 경상북도 청도와 강원도 원주에 피난민 진료소를 두고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 남아 있던 세브란스의과대학의 교직원들도 구호진료소를 설치하고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⁴⁷⁾ 거제도 구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는 198,756명이었고, 입원환자는 38,635명이었다. 거제도 세브란스병원은 1952년 2월부터 학교와 병원이 서울로 복귀하기 시작했지만, 피난민의 진료를 위해 1956년까지 남아 있었

표1. 전시 세브란스 구호진료활동

단위: 명¹⁾

장소	기간	의사수	간호사	직원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거제도	1951. 1. 21~1952. 3. 21	12	16	15	198,756 (1일 449)	38,635
청도	1951. 4. 14~7.8	5	12	35	-	38,920 (1일 718)
원주	1951. 8. 25~1952. 1. 4	8	17	20	45,802 (1일 347)	25,292 (1일 124)
서울	1951.5~1952.3.31	8	15	16	4,200	
계		34	60	86	248,578	132,847

45) 문창모, 『천리마 꼬리에 불은 쉬파리』, 205-208.

46) 문창모, 『천리마 꼬리에 불은 쉬파리』, 210-212.

47)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 190-193.

다. 청도 구호병원에서는 3개월 동안 38,920명이 입원하였고, 원주 구호병원에서는 4개월여 동안 외래환자는 45,802명이었고, 입원환자는 25,292명이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내의 구호병원에서도 1년여 동안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진 3. 거제도 세브란스 구호병원: 한국전쟁시기 세브란스는 거제, 청도, 원주, 서울 등지에서 구호 병원을 운영하였다. 사진은 거제도 세브란스 구호병원 외래진료실 모습.

특히 세브란스는 거제도와의 인연을 잊지 않았다. 1952년 3월, 세브란스의 주력은 서울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지만, 피난 동안 거제도민의 보여준 보은에 보답하기 위해 외과의 김광희 교수, 캐나다 선교사 닥터 랍, 주수택 등이 남기로 했다. 1960년대 초까지도 김양선 등이 세브란스 진료소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다.⁴⁸⁾

3. 한국전쟁 이후 학교와 병원의 재건

한국전쟁 이후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은 건물의 85%가 파손되어 한순간에 잿더미로

48)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연세의사학』 7-2, 125.

변해 있었다. 1952년 세브란스의 리더로 새롭게 임명된 김명선 학장과 문창모 병원장은 세브란스 재건의 책임을 오롯이 맡게 되었다. 파손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해 미군당국의 협조로 건축자재를 비롯한 물자를 공급받았고, 수리비용은 한미재단과 선교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학교 내에 김명선을 비롯한 교수들과 학생들이 병원 내에 기거하면서 밤낮으로 삽질과 봇질을 하면서 병원의 재건에 힘썼다.

외국기관의 원조도 계속되었다. 감리교 여선교부, 캐나다선교부 등의 원조로 간호원 기숙사와 외래진료소, 학교 본관 등을 수리하였고, 1953년 미8군 민사원조처의 지원으로 본관을 증축하였다. 1954년 봄에는 한미재단에서 5천 달러를 기부 받아 정신병동 북쪽에 25평 정도의 기와집을 지어 의수족부 환자의 보행연습실과 숙소로 사용하였다. 세계기독교봉사회가 4만 달러를 기부하여 4층짜리 흉과내부 병동을 짓을 수 있었는데, 1층과 2층은 흉과내과에서, 3층과 4층은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각계의 지원 덕택에 세브란스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재건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무너진 건물을 정리하고 새건물을 짓고자 하였으나, 무너진 건물을 정리하는 데에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었다.

때마침 미8군은 서울에 참전기념병원을 짓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왔고, 김명선과 문창모는 서울역앞의 세브란스병원 부지를 미8군 물자담당관에게 보여주었으나, 부지가 너무 좁다고 난색을 표했다. 마침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에 관심이 있던 백낙준 총장과 상의한 후, 연희대학교 캠퍼스를 미8군 책임자에게 보여준 결과, 미8군 책임자는 병원의 위치로 매우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명선은 미8군기념병원이 신촌에 생기는 만큼 서울역 앞의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을 신촌으로 옮기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세브란스 재단이사회는 신촌캠퍼스에 의과대학, 간호대학, 병원을 건축하되, 소요되는 자재는 미8군이 공급하고, 공사비는 세브란스측이 선교부의 원조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1955년 4월 23일, 미8군과 백낙준 총장, 김명선 학장 등이 참석하여 미8군기념병원의 기공식을 열었다. 병원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병원이 건립될 경우, 병원과 의과대학이 원거리에 놓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과 진료를 위해서는 의과대학도 신촌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결국 세브란스 재단이사회는 미8군기념병원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등을 결합시킨 새로운 메디컬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다. 미8군과 선교부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의과대학 건립에 필요한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

를 위해 김명선은 차이나 메디컬 보드(China Medical Board)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차이나 메디컬 보드 역시 중국의 공산화 이후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차이나 메디컬 보드의 라우스(Harold H. Loucks) 총무는 한국을 방문하여 차이나 메디컬 보드가 지원할 새로운 기관으로 세브란스의과대학을 지목하였다. 라우스는 북경협화의학원 재직 시절 대학선배인 세브란스 외과의 리들로 교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로부터 세브란스에 관한 많은 정보를 듣고 있었다. 결국 차이나 메디컬 보드의 지원 속에서 의과대학, 건호대학 등이 추가로 건설될 수 있었다. 1958년 6월 28일, 미8군기념병원이 준공되었고, 1959년 10월 1일, 간호학교와 기숙사 및 소아재활원이 개관하였으며, 1962년에는 의과대학과 병원과 병동이 완공되어 6월 5일 봉헌식을 거행하고, 8월에 서울역앞 캠퍼스를 모두 신촌으로 이전함으로써 신촌의료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⁴⁹⁾

IV. 맺음말

1934년 오궁선이 세브란스의 책임자로서 임명되면서 세브란스에는 한국인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 세브란스는 4반세기동안 일제의 폭압, 한국전쟁의 폐허와 재건이라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폭압, 전쟁, 폐허, 재건의 시기에 세브란스의 선교활동 역시 선교사 강제 퇴출과 억압의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브란스의 책임자들은 각 선교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을 전국 각지의 선교병원에 파송하였고, 전국의 선교병원들을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오궁선과 김명선은 선교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적지 않은 세브란스출신 제자들을 선교병원에 파송하는 매과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선 오궁선은 김명선을 평양연합기독병원 원장으로 추천하였고, 김명선은 해방 전까지 5년여 동안 평양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출퇴근하였다. 김명선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브란스 졸업생들을 평양 및 전국 각지에 파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김명선, 문창모, 고병간 등 병원장급의 의사들 외에도, 적지 않은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이 전국 각지의 선교병원에서 활동했던 만큼, 향후 이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49) 김명선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 247-255.

해방 직후 세브란스는 귀환 동포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브란스학도대라는 전대미문의 학생조직을 구성하여 서울역 일대의 치안을 유지하고, 귀환 동포들을 구호하기 위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였다. 각개 각처로부터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세브란스학도대는 귀환 동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의류와 식량을 확보하여 구호활동을 펼쳤다. 그 기간은 비록 2달여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브란스학도대는 해방 직후 해외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귀환 동포들의 안전한 귀환을 돋고 일본경찰의 치안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전쟁시기에는 세브란스는 전국 각지에서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세브란스는 피난지인 부산에 의과대학 본부를 설치하였으나 병원과 간호학교는 거제도에 설치하였다. 거제도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피난민을 위한 구호병원을 운영하였다. 부족한 의료인력 때문에, 기초의학교실의 적지 않은 교수들이 구호병원의 운영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의학생과 간호학생들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충하였다. 구호병원은 거제도 이외에도 청도, 원주, 서울 등지에서도 운영되어 피난민 구호에 힘을 보탰다.

이 시기 동안 세브란스의 지도자들은 한국사회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학장과 병원장으로 재직했던 이영준, 이용설, 오한영, 최재유, 문창모 등이 정계의 지도자로서 활동하였고, 정계 활동을 꺼려하던 오궁선과 김명선은 개인적으로 교육사업과 보육사업 등 사회운동에 헌신하였다. 특히 오궁선과 김명선은 선교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해방 전에는 전국 각지의 선교병원에 의료활동을 지원하였고, 한국전쟁 전후에는 구호활동과 보육활동 등 한국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 말기, 해방 전후,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의 시기에 조직적인 선교활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궁선, 이용설, 김명선, 문창모 등 세브란스의 지도자들은 학생, 교직원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가 요청한 사명을 묵묵히 실천해 나갔다.

핵심어: 일제, 해방, 한국전쟁, 세브란스병원, 선교병원, 오궁선, 김명선, 세브란스학도대, 세브란스구호병원

논문 투고일: 2015.03.20. 심사 완료일: 2015.04.17. 게재 확정일: 2015.04.17.

참고문헌

1. 자료

『관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세브란스교우회보』

『세브란스일람』

국립보건원, 『WHO-UNKRA 보건사업 기획사절단 보고서』(국립보건원, 1961).

佐藤剛藏, 이충호 역, 『朝鮮醫育史』(형설출판사, 1993).

C. C. Choi, *Public Health in Korea* (1949).

In-ho Chu, *Public Health Reports in Korea* (1951).

2. 연구서

김명선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도서출판 큐라인, 1998).

대한의학협회, 『대한의학협회 70년사』(대한의학협회, 1979).

문창모, 『천리마 꼬리에 불은 쉬파리』(삶과꿈, 1996).

민성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맥라렌 교수의 생애와 사상』(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946-200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08).

서우드 홀, 『조선회상』(좋은씨앗, 2009).

신규환 · 박윤재, 『제중원 · 세브란스 이야기』(역사공간, 201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86).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저,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연세창립8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 『연세대학교사』(연세대학교출판부, 1969).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외, 『일제하 연세학풍과 민족교육』(도서출판 혜안, 2015).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외, 『해방 후 연세학풍의 전개와 신학문 개척』(도서출판 혜안,

2015).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재단법인 김명선기념재단, 『김명선 교수 일화집』(조광문화사, 1992).

정구충, 『한국의학의 개척자』(동방도서, 1985).

지강유철 저, 『장기려, 그 사람』(홍성사, 2007).

최동, 『조선상고민족사』(동국문화사, 1966) 1969년 재판, 1988년 인간사 발행.

최제창, 『한미의학사: 의사의 길 60년을 돌아보며』(영림카디널, 1996).

해관오궁선생기념사업회 편, 『해관 오궁선』(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7).

현봉학, 『나에게 은퇴는 없다』(역사비평사, 1997).

홍순원, 『조선보건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 연구논문

「해방과 세브란스 학도대의 활동」, 『연세의사학』 6-2, (2002. 12).

「세브란스와 한국전쟁」, 『연세의사학』 7-2, (2003. 12).

기창덕, 「海觀 吳競善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의사학』 5-2, (1996, 12).

박성래, 「우리나라 첫 피부과 전문의 오궁선」, 『인물 과학사』(책과함께, 2011).

박윤재 · 박형우, 「북한의 의학교육제도 연구」, 『의사학』 7-1, (1998. 7).

박형우, 「해방 직후 북한의 의학교육에 관한 연구」, 『남북한 보건의료』 3,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3).

신동환, 「한국 최초의 외과병리 및 임상병리학자 최동(崔棟) 박사」, 『연세의사학』 2-1, (1998).

신오성, 「한국전쟁 전후의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 1945-1959」, 서울대 보건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신유섭 외, 「여천(與天) 이용설(李容禹)의 의료 계몽과 학술활동」, 『연세의사학』 17-1, (2014. 6).

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의사학』 9-2, (2000. 12).

여인석, 「김중렬 선생님 탐방기」, 『연세의사학』 2-4, (1998. 9).

여인석, 「세브란스 정신과의 설립과정과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의 형성: 맥라렌과 이중철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사학』 17-1, (2008. 6).

여인석,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세브란스」,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외, 『해방 후 연세학풍의 전개와 신학문 개척』(도서출판 혜안, 2015).

- 이규식 · 양정필 · 여인석, 「최동의 생애와 학문」, 『醫史學』 13-2, (2004. 12).
- 이용설, 「나의 이력서」, 『한국일보』, 1977년 9월 29일.
- 이유복, 「이용설 선생과의 대담」, 『연세의사학』 2-5, (1998. 12).
- 전종휘, 「전시연합대학에서의 활동」, 『의사학』 9-2, (2000. 12).
- 한규무, 「경성보육원의 설립과 운영」, 『향토서울』 79, (2011. 10).

Abstract

Severance Hospital and Missionary Works at the Turning Point (1934-1957)

Sihn Kyu-hwan

Dep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Oh Geung-seon became the first Korean president of Severance in 1934.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forced the evacuation of missionaries and suppressed missionary works. Oh Geung-seon tried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outstanding medical doctors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Oh Geung-seon and Kim Myeong-seon dispatched Severance medical school graduates to mission hospitals in Korea to serve as mediators among the missionaries. They were dedicated to normalizing the mission hospitals. Oh Geung-seon recommended Kim Myeong-seon as the director of Pyeongyang Presbyterian Hospital. Mun Chang-mo and Goh Byeong-gan also managed mission hospitals.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Severance Hospital—located in front of Seoul Station—was a meeting place of returning Korean nationals from abroad. Severance's Student Unit maintained public order and relieved repatriated brothers. During this short period, they were dedicated to voluntarily serving war refugees and repatriated brothers.

During the Korean War, Severance Hospital organized relief hospitals in Geoje, Cheongdo, Wonju, and Seoul. Severance Hospital and its graduates attempted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times.

Key Words: Japanese colonialism, liberation, Korean War, Severance hospital, missionary hospital, Oh Geung-seon, Kim Myeong-seon, Severance Student Unit, Severance Relief Hospital